

# '용성 사상'에서 시대 방향 찾는다

### 5월 29일 탄생 15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구한 말 한국불교의 근간을 세우고, 독립운동의 주역을 활동한 용성 스님을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단법인 백용성조사기념사업회와 백용성조사 유헌실현위원회·죽림정사는 5월 29일 용성스님 탄생 150주년을 맞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념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허우성 경희대 철학과 교수와 김순석 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이 각각 대중불교에 앞장선 스님을 새롭게 조명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대중 포교에서 만해와 성철의 중간지점"

허우성 경희대 철학과 교수는 용성 스님이 근대 한국불교계에서 자아완성과 구세가 둘이 아니라는 사상을 펼친 선지식으로 설명했다.

허 교수는 '자아완성과 구세는 둘이 아니다. 용성의 대각사상' 발제에서 "스님은 시대성격에 맞게 엘리트 출가자 양성과 대중 포교, 민족국가 생존 및 자유독립 수호에 나섰다"며 "특히 전통과 대중화의 중도의 길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용성 스님이 활동한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에는 불교의 교세는 기독교의 활발한 선교 등으로 크게 위축돼있었다. 이는 용성 스님이 79세에 쓴 '중앙행정에 대한 희망'에 잘 드러나 있다. 당시 불교 현실은 청정 교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이도, 재원도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출가자들은

경시와 천대까지 받고 있었다.

허 교수는 "교정의 개선과 선과 율의 겸행, 자기노동, 재산 낭비 방지 등이 용성 스님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이는 1922년 이후 대각교 운동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또 이런 용성 스님의 사상이 만해 스님과 성철 스님의 사상의 중간지점에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용성 스님은 만해 스님과 함께 독립선언에 참가했지만 만해 스님보다는 전통적이었으며 성철 스님보다는 대중적이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또 "용성 스님이 지계를 강조하고 사법을 비판한 것은 일본제국주의의 종교 정책과 대처를 허용했던 만해를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끝으로 "기미독립선언의 주도가 누구에 의해 이뤄졌는지 심도있게 연구해야 한다"며 "용성 스님과 만해 스님이 구



5월 29일 열린 기념심포지엄에서 조성택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연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 "독립운동 후원 방편으로 선봉일치 펼쳐"

김순석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은 '시대정신, 독립운동' 발제를 통해 "용성 스님은 3·1운동 참여, 역경사업, 선학원 창설, 참선만일결사운동 전개, 대저식육금지 건백서 제출, 선봉일치의 실천, 대각교 운동 전개 등으로 주요 활동을 펼쳤는데 특히 비폭력·무저항주의에 입각한 운동이 높게 평가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용성 스님이 비폭력 하에 독립을 이룰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으며 조선의 독립이 동아시아 평화에 필수적이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하지만 용성 스님이 독립운동가들을 물심양면 지원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용성 스님이 선봉일치 생활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1926년부터 1927년 사이 간도 용정 명월촌과 영봉촌에 전지매입하고 선봉당을 설립했으며 경남 함양 백운산 부근에도 산림과 황무지 수 만평을 매입해 과수와 야채 등을 재배했는데 이는 독립운동가들에게 은신처와 자금을 공급해 주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연구원은 "1945년 12월 12일 임정요인들이 대각사를 방문한 것 등이 이를 증명한다"며 "이런 내용은 구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용성 조사 기념사업회' 이사장 법륜 스님은 "최근 우리 사회에 일어난 사회 상황과 용성 스님이 활동했던 사회상황은 흡사하다"며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교훈을 얻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불교 문헌해석학과 과문 전통' 조명

### 불교학연구회 5월 24일, 서울대서 춘계학술대회

경론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시작적으로 표시하는 과문, 현재 한국 강원에서 실행되는 불교의 문헌 분석방법론 중 백미로 꼽히는 과문전통을 되짚는 자리가 열렸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조은수)는 5월 24일 서울대 인문대학 신앙학술정보관에서 '불교의 문헌해석학과 과문의 전통'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서울대 철학사상연구회 선임연구원 심원 스님은 '회본의 성립과 과문의 역할' 발표를 통해 "두개 이상의 전적을 하나로 모은 회본 성립에 있어 과문은 시작과 끝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과문은 회본이라는 건물을 짓는데 설계도이자 기본골조"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한국불교계에서 초조 등 장소가 대거 찬탈된 것은 과문전통이 발달한 결과"라며 "과문전통은 저술의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데 훌륭한 도구가 됐을 뿐 아니라 회본 발달을 이끌어 종합주석서로서의 경전 간행과 초조 등의 발달을 이

끌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끝으로 "과문과 회본은 세분화되는 발전과정 속에 복잡해지는 폐단을 낳았지만 디지털 기법이 보급된 현재에는 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과문에 적합한 디지털 프로그램을 활용해 새로운 형태로 개발한다면 관련 전적을 서로 연결하는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대 철학사상연구회 김주경 선임연구원은 "과문을 통해 본 경제적 변천"을 통해 "전통과과문을 디지털 시각화한 결과를 바탕으로 과문의 외형 특징인 경제적과 수문적 중 경제성을 연구했다"며 "과문 전통의 발달로 경제적 경전의 단순한 해제 역할에서 벗어나 불교해석학의 핵심으로 위상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속장경 내 많은 주석서들에서 논서의 형식을 종론(宗論)과 석론(釋論)으로 구분했는데 경제적은 종론, 수문적은 석론에 해당된다. 이는 경전 해석을 주석하며 두 측면을 함께 보는 중국적 주석전통"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종교의 정치참여 어떻게 보아야 하나"

### '불교와 정치' <불교평론> 여름호 특집 논길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교의 정치참여를 주제로 한 기획 논단이 논길을 끈다. 제간 <불교평론>은 2014년 여름호에서 '불교와 정치참여' 특집을 펴냈다.

먼저 김영명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정교분리와 종교의 정치참여" 논고를 통해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종교계가 선을 추구하기 위해 정치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는 이상세계의 실현을 목표로 삼는 종교의 원래 목적이자 고유한 기능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교분리와 종교의 정치참여" 논고를 통해 "정교분리의 참의의는 국가가 종교의 자유와 종교 간 중립을 보장함과 동시에 종교가 국가가 하지 못하는 사회정치 분야를 보완하는 것"이라며 "종교의 정치참여가 바람직한지를 따지기 전에 민주화, 인권, 환경 등 종교적 선과 관련된 큰 정치적 흐름에 있어 종교가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도·동남아시아의 불교와 정치(황순진) △동아시아의 불교와 정치(최연식) △불교의 정치사상과 한국불교(곽병찬) 등 총 6편의 논문이 실렸다. 이학중 미디어버터 대표도 '현대 한국불

교의 정치참여와 평가'에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 될 수 없으며 다만 '구분'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교분리"나 "종교가 정치에 간여해선 안 된다"는 말이 여전히 회자되는 것은 속고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며 "해방 이후 현재까지 불교계와 국가 사이에 이뤄진 진정한 의미의 정치는 거의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호 이해를 위한 유착, 결합, 거래는 아랍 이자 부도덕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윤세원 인천대 교수도 '불교는 정치를 어떻게 보는가' 논고에서 "불교가 세속과 절연을 권장하는 종교이기에 본질적으로 정치와 거리가 멀다는 견해는 편견"이라며 "정치가 지배하는 삶의 현장에 대한 불교도의 무관심과 정치배척은 불교의 존립을 매우 위협하게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인도·동남아시아의 불교와 정치(황순진) △동아시아의 불교와 정치(최연식) △불교의 정치사상과 한국불교(곽병찬) 등 총 6편의 논문이 실렸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초·중·고 윤리교과서의 불교 서술 분석

초·중·고 윤리교과서에 실리는 불교에 대한 내용분석을 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6월 14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초·중·고 윤리교과서의 불교 서술체제와 내용'을 주제로 제20차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연찬회에는 제18차 연찬회에서 역사교과서의 불교사 기술 오류 문제를 분석한 바 있다.

이날 자리에서는 불교의 윤리관이 교과서 내에 어떻게 표현되는 지를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연찬회에는 △이철수 수원초 교사의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의 불교서술 체제와 내용' △신희정 진영중 교사의 '중학교

윤리교과서의 불교서술 체제와 내용' △이철훈 상현고 교사의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의 불교서술 체제와 내용' △박병기 교원대 교수의 '윤리교과서의 불교서술의 문제와 개선방향' 등 현직 교사들의 논문이 발표된다.

또 토론회 등에서 각 시기별 교과서의 불교서술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다뤄 교과서 내의 불교 서술 오류의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불광연구원은 "연찬회를 통해 윤리교과서의 불교 서술 흐름을 살펴보고 오류를 비교분석할 수 있을 거"이라며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정부당국에 문제제기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02)941-3537

노덕현 기자

## 불교학지원사업회, 소장학자 지원사업 공모

(사)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이사장 법상)는 제11회 불교소장학자 연구지원사업을 공모한다. 불교관련 박사학위 논문 지원, 불교관련 번역지원 등 2개 분야로 불교관련 박사학위 논문 지원은 학위취득시기에 제한이 없으며 학위 논문 수정, 보완 후 응모도 가능하다. 선정된 2명에게는 각각 500만원의 지원금이 수여된다. 불교관련 번역지원은 불교학 관련 원전 및 외국어 단행본을 대상으로, 선정된 2명의 학자에게는 각각 10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선정될 경우 지원사업회에서 출판지원비도 보조해 도서출판 씨아이알에서 출간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6월 23~28일로 결과는 9월 중 개별통지 된다. (010)9789-3083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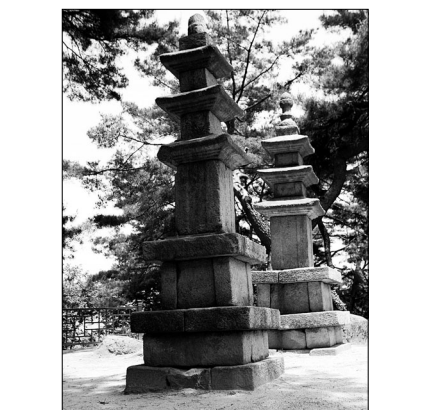
## 근현대 불교학자들의 '삼국유사' 인식 고찰

한국불교사연구회(소장 고영섭)는 6월 7일 동국대 다학관에서 '대한시대 인문학자 불교학자의 삼국유사 인식'을 주제로 제7차 집중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고운기 함양대 교수의 '퇴계 권상로의 삼국유사 인식과 변

역',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육당 최남선의 삼국유사 인식과 해제', 김성주 동국대 대학원 초빙교수의 '무애 양주동의 삼국유사 향가 인식', 엄기표 단국대 교수의 '우현 고영섭의 삼국유사 탐상 인식'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 最古쌍탑, 용암사 동·서 삼층석탑 해체 수리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보물 제1338호 '육천 용암사 동·서 삼층석탑'을 해체·수리한다. '육천 용암사 동·서 삼층석탑'은 2012년 시행한 구조안전진단 결과, 석탑 하부 지반 암반층 불균형으로 인해 동탑은 동쪽으로 87mm, 서탑은 동쪽으로 196mm 기울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2002년에 보물로 지정됐다. 고려 시대 성행한 산천비보(山川裨補)상에 의해 건립된 석탑 중 유일한 쌍탑이다. 노덕현 기자

문화재청은 동·서 삼층석탑 해체 후 지반을 보강해 바로잡고, 서탑의 변형된 2·3층 탑신석은 기존 석탑과 같은 재질의 화강암 석재로 교체할 계획이다.

'육천 용암사 동·서 삼층석탑'은 동탑의 높이는 약 4.3m, 서탑의 높이는 약 4.1m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중 기단 위에 3층 탑신으로 이뤄진 고려 시대 석탑이다. 노덕현 기자

##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천 광 수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 제 87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4년 6월 30일 까지
- ◆ 개강일시 : 2014년 7월 1일 (화요일) 개강.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초급, 상급 (각 3개월) 1시 ~ 2시 반  
 ▶ 개강일시: 2014년 6월 9일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특도, 포교원(사찰)장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